

로마서 묵상 17  
(12/19/2020, 토)

찬양: 426(215)(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3:9-20

말씀에 대한 이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다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증은 이신칭의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깊이 자각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의 중요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바울은 그들(유대인과 헬라인)과 우리(바울의 일행을 비롯한 로마교회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9 절 -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나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롯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 그리고 로마교회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열린 길로 들어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고침받고 성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거나,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10-12 절 -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0 절은 시 14:3(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칼빈이 말한 '전적타락'(Total Depravity) 이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말 속에는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이며, 그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의가 필요합니다. 루터는 이것은 '외부적 의'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할 때의 "의"는 인간이 행하는 도덕적인 의, 그리고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의 의를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다양한 내외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말씀들 역시 다른 성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13 절 -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구절의 앞부분은 시 5:9(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침하나이다)과 뒷부분은 시 140:3(뱀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악된 사람들의 잘못된 언어 생활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의 말은 마치 열린 무덤에서 악취가 나는 것과 같으며, 계속 거짓을 말하고 속이며, 마치 독사가 독을 뱉듯이 그들의 말은 독처럼 작용하여 남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말을 하는 인간은 그 말로 상대방에게 독을 내뿜듯이 공격하며 상처를 줍니다.

14 절 -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씀은 시 10:7(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차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자기 안에 가득차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쏟아 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말들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성찰하면, 현재 우리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5 절 -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말씀은 사 59:7(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

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을 인용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사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은 다양한 다툼과 충돌에 늘 연루되어 왔으며, 지금도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분쟁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 절 -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 말씀은 사 59:7 의 뒷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을 가진 인간은 파멸과 고생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멸”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파괴된 현상’을 의미하며, “고생”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적인 뜻은,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최악의 끝은 파멸이며 고생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한 순간이며, 그 순간 왜곡된 쾌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 결과는 파멸과 고통임을 알아야 합니다.

**17 절 -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사 59:8 의 앞부분(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을 인용한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죄를 짓기 전에 가졌던 평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불안감과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인간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18 절 -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 36:1(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그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악된 인간은 더욱 뻔뻔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은 더욱 완고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대적하며,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같은 존재인양 생각하며 함부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는 것,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며 머리를 숙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죄의 모습을 열거한 바울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심판이며, 율법은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울러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19-20 절 -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이 구약성경을 계속 인용하며 인간의 죄의 모습을 묘사한 이유는,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오늘 본문 아래에서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죄인의 다양한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 자신 안에는 회복의 능력과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인간,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파멸과 고생의 길을 달려가는 인간,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이 없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조금만 방심하면 금새 마음이 풀어지고,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말과 행실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 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오늘도 나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박으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 현장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으시며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